

안전취약계층도 냉난방비 지원 혜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해구호기금 조례안 가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370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조례안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이번 심사보고는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의원이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예산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치하 주택에 개폐식 방법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 주요 안건인 '경기

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한파·폭염 쉼터에만 냉난방비를 지원했던 것을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폭염 대비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심사보고 후 투표를 통해 안행위 소관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심사대로 가결됐다.

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종영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의회 단신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6개 조례안·안전 상정

동두천시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22회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을 가결한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대표 발의로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동

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김승호 의원)까지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집행부에서는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제출했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장맛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한성대 기자

학교 공기순환기 관리개선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공기순환기 문제점 공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역 내 학교 공기순환기의 총체적 개선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중식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분(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시교육청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장 및 민병수 교육시설과장 등 관계 공무원, 미세먼지대책을추진합니다의 천지연 위원, 대한설비공학회 송근호 환경부분위원장, 조은혜·박홍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공기순환기 설치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학교 공기순환기의 구입·설치부터 관리·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공기순환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과 학교에 설치 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건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역 내 학교 공기순환기의 총체적 개선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사항 등이 있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신중식 위원장은 "학교 공기순환기는 우리 아이들의 건

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공기순환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청렴특강

경기도의회 의원·직원 참석

경기도의회는 18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내부청렴도 향상과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강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겸직금지 관련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날 특강을 진행한 김대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시대가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의 청렴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른 지방 의원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여러 예시를 통해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희철(민주당·화성6)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춘천문화재단·춘천 사회혁신센터 방문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단체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출연기관의 주민친화적 발전을 모색하는 의원연구모임'이 18일 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우수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춘천문화재단 외 2곳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숙희 의원과 연구단체 소속인 박영훈·유구영·구동오 의원이 참여했으며 춘천문화재단을 방문해 △생활문화 지원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사업과 주민친화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청취하며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이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춘천 사회혁신센터인 '커먼즈필드 춘천'에 방문해 강원도내 '지역문제 해결 거점'으로 대표되는 공간인 '커먼즈필드 춘천'의 설립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를 청취하고 체험하면서 해당 센터의 성공 요인, 우리 구에 도입 가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가 18일 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우수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춘천문화재단 외 2곳을 방문했다. (사진=인천 부평구의회)

여부 등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문화 발전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였다"며 "앞으로 우리 의원연구단체는 현장 방문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구단의 특색을 가진 주민친화적인 문화재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찾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홍일 기자

김포공항 고도제한·소음피해 경기도 지원 촉구

유경현 경기도의원 5분발언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민주당, 부천7)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소음, 광명서를 지하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포공항 건설 이전 들어선 부천 고강동의 아파트들은 40여 년이 지나 낡고 노후됐으나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웠다.

여기에 지난 2021년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광명서를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며 사실상 재개발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유 의원은 "주민들이 국가를 위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보상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직접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한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은 2분에 한 대씩 운행하는 항공기의 굉음으로 청력저하·불면증·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가 지원하는 연 7억원이 전부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

지난 2017년 제정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에는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 실태조사 추진 등 도시사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을 위해 단 하나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의원에서 참담하다"며 "경기도가 중심이 돼 주민맞춤형 보상사업 설계 등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나서라"고 주문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김인창 기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늘 처음느낌처럼 진정한 책을 만났을 때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感 처/음/느/낌

도서출판 수목원 가는길